

힘겨리는 교육

이 주의 교육노트

폭염에 개학,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게 방학 동안 규칙적으로 일어나라고 했지!” 늦잠자는 아이한테 소리치고 계시죠? 어른들도 주말 잘 쉬고 와서 ‘월요일’ 호소하잖아요. 쉬고 오면 더 힘든 법이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겨울방학까지 넉달 넘게 남았습니다. 긴 레이스, 초반부터 욱박지르지 마세요. 잘 달리려면 워밍업이 필수입니다.

학업역량 주춧돌로 탐구심 드러내는 게 열쇠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 준비법

9월1일 민사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단위 자사고(이하 전국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전국자사고(10곳) 2896명, 외고(31곳) 6152명, 국제고(7곳) 1048명이다. 전기고에 속하는 특목 자사고 입시에선 중복지원이 불가해 과고·외고·국제고·자사고(전국/광역) 중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모집단위가 다르다. 외고·국제고는 광역단위 모집으로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전국자사고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지역에 외고가 없는 광주와 세종에 사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학교들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1단계 학생부, 2단계 서류·면접으로 전형을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민사고는 3단계), 1단계 내신반영 학기와 과목, 과목별 가중치 등에서 차이가 난다. 외고·국제고는 2학년 성취도, 3학년 9등급제로 4개 학기 영어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전국자사고는 주요 교과(국·영·수·과·사) 성적을 반영한다. 영어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면 외고·국제고를, 주요 과목의 성취도가 두루 잘 나온다면 전국자사고에 도전해볼 만하다.

중학교 입학 때부터 특정 학교를 목표로 장기간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도 있겠지만, 3

학년 여름방학 때 그동안의 내신 성적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교를 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H&진로진학연구소 조동영 소장은 “전국자사고의 경우 학교마다 교과반영 학기가 다 다른데, 자신에게 불리한 학기를 제외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전략”이라고 했다.

자소서는 학업역량 다양하게 드러내야

외대부고·하나고·상산고처럼 학부모선 호도가 높은 전국자사고와 서울·경기권 외고는 1단계 통과 기준이 대부분 올A, AA11에 가까운 성적대이다. 성취평가제 탓에 내신변별력이 떨어져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게 분포해 있다. 실제 합격 여부는 2단계 서류와 면접이 좌우한다 볼 수 있다. 2단계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는 대부분 1500자 안팎.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과 인생 영역이 공통으로 포함되고, 민사고와 상산고처럼 학교별 문항이 추가된 곳도 있다.

고입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업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대부고 입학 홍보부장 최종우 교사는 “외대부고 자소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스토리를 구성하되,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 자신의 학업적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는 데 중점을 뒀어 한다”고 했다. 세부 평가 기준은 각 학교의 인재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신입생 입학요강이 발표되는 8월 이후부터 학교별로 설명회를 열어 전년 입시 결과와 기출문항, 올해 변경될 평가 요소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는 게 좋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건 ‘어떤’ 학업역량을 드러내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업역량은 곧 교과와 연계되는데 특히 자사고에서는 보통 수·영·국 순서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특정 학교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영역을 알려면 입학요강에 나온 과목별 가중치를 보면 된다. 조소장은 “가중치가 가장 높은 과목을 어

떻게 공부해왔는지 학업역량 부분에 우선하여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원동기나 진로계획도 학습경험이나 독서와 연결지어 서술하면 좋다”고 강조했다.〈표> 참고

학생부에 기재된 수행평가나 토론 활동이 있다면 이때 작성한 보고서나 토론 주제를 놓고 ‘교과적 역량’을, 활동 중 어려움을 극복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학구열’과 ‘인성’을 드러낼 수 있다. 에듀바른컨설팅 김종완 소장은 “서류 내용 중심으로 면접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 때 자신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교사는 “과정별 기본역량이 갖춰진 것을 전제로 그 역량과 반대되는 분야에서 강점을 언급해서 융합적 소양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외고·국제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영어 외에 수학 같은 주요 교과역량을 드러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선발은 영어 위주이지만 실제 고교 입학 뒤 고교 교육과정을 이어가야 하고, 이게 대입에서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대원외고 불어과 2학년 유현다양은 자소서에 “나는 영어도 잘하지만 다른 것도 골고루 잘한다는 걸 강조했다”고 말했다. 2·3학년 때 과학동아리에서 직접 실험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과학 내신 학습능력을 키웠고, 텃밭농부 활동으로 배운 동식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했다. 이를 자신의 꿈인 광고기획자로 확장했는데 ‘유명 광고제와 시각예술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광고를 공부해 환경문제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소서 작성을 할 때 주의점도 있다. 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자소서 배제 사항은 0점 또는 감점 요인이 되니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자소서 입력사항과 관련해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 입학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내신 변별력 떨어지고 면접 비중 높아져

면접은 모든 수험생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질문’과 각각의 서류에 기반을 둔 ‘개별질문’으로 이뤄진다. 보통 1인당 15분 내외. 학교마다 면접 형식과 내용이 제각각인데, 면접시간이 길고 어려울수록 수험생의 면접 역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면접을 잘 치른 학생이 내신과 서류 점수를 뒤집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개별질문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위원 입장에서 예상 질문을 20개 이상 만들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연습해보면 좋다. 공통질문이나 제시문 면접을 치르는 경우는 답변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력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모의면접을 해보면 좋다.

성취평가제로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김 소장은 “서류 검증형 면접이라도 서류의 진위만 묻는 게 아니다. 그 안의 사소한 의미나 맥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진로계획을 쓸 때도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강조했다면 세계화나 글로벌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했다면 봉사의 의미부터 한국 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잘 가자!’ 목적만으로 선택은 위험

전기고 입시를 준비할 때 보통 문과 성향이려면 외고·국제고와 자사고 문과반을, 이과 성향일 경우 과고 또는 자사고 이과반 중에서 고민하게 된다. 취업난에 따른 이공계 선호로 전국자사고 이과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순히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막연히 대학에 잘 가기 위해 특목·자사고를 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좋은 수업 분위기와 다양한 교

9월1일 민사고를 시작으로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특목·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으로 다양한 교내활동과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 사진은 토론 토너먼트 수업 중인 대원외고 학생들의 모습(왼쪽)과 외대부고 오케스트라단의 축제 오프닝 공연 장면이다. 대원외고(왼쪽), 외대부고 제공

내활동은 장점이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치열한 내신 경쟁을 버티기 힘들다.

고입은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목표인 대입을 향한 중간 과정이다. 1회의 전기고 지원 카드는 번수가 많은 입시에서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떨어져도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진로설계 계기로 삼고, 한 단계 성장을 목표로 도전해보면 좋다.

이은애 <함께하는 교육> 기자 dmsdo@handedu.com

2017 전국 자사고 반영학과 과목별 가중치

학교	반영학기	반영교과 (가중치)
외대부고	2-1~3-2	국(2.5) 영(2.5) 수(2.5) 사(1.25) 과(1.25)
하나고	2-1~3-1	국(3) 영(3) 수(3) 사(1) 과(1)
상산고	1-2~3-1	국(80) 영(80) 수(100) 사(60) 과(60) 체육(20)
현대청운고	1-2~3-1	국(25) 영(30) 수(35) 사(5) 과(5)
민사고	1-1~3-1	국(5) 영(5) 수(5) 사(3) 과(5) 기타(8)
포항제철고	1-2~3-1	국(20) 영(25) 수(25) 사(15) 과(15)
광양제철고	1-2~3-1	국(20) 영(20) 수(30) 사(15) 과(15)
인천하늘고	2-1~3-2	국(40) 영(60) 수(60) 사(40) 과(40)
북일고	1-2~3-1	국(40) 영(40) 수(40) 사(30) 과(30) 기타(20)
김천고	1-1~3-1	국(48) 영(60) 수(60) 사(36) 과(36)

※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 누리집에서 확인

전기고교 선택 때 알아둘 것들

자사고도 전국, 광역 등 차이 있어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줄임말로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하며 필수이수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등이 자유로운 고교를 뜻한다. 모집단위에 따라 전국단위, 광역단위(해당 지역)로 나눠 전기에 선발하는데,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 선발기준에 차이가 있다. 자사고는 1단계를 내신으로 선발하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

계에서 성적 제한 없이 1.5배수 추첨으로 2단계 서류·면접 대상자를 뽑는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인재를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전국 자사고 입시가 내신 커트라인도 높고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편이다. 다른 전기고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점은 둘 다 동일하다.

반면 자율학교는 후기고에 속해 전기고 입시에서 떨어져도 지원 가능하다. 단, 일반

고 전형 일정과 중복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율학교도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어 ‘농어촌 자율학교’로도 불린다. 전국적으로 9곳이 운영 중이며,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따라 학생부 내신과 서류·면접, 선발고사 등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대입 실적이 우수한 편이라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

재수생 비율 확인, 학비 등도 고려해야

특목·자사고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학 진

학 실적이다. 그런데 수치를 잘 살펴보면 명문대 합격 인원 합계가 정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 중복 합격 케이스를 모두 실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활용해 실제 등록 기준으로 진학 실적을 살펴보고, 재수생 비율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목·자사고가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내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신 관리에 불리한 면이 있어 재수해서 정시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시와 정시로 진학하는 비율을 함께 살펴 입시에 고루 강한지

도 확인하는 게 좋다.

비싼 학비도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1년 학비는 평균 1천만원을 넘나든다. 일반고와 달리 기숙사 체제의 학교가 많아 수업료 외에도 기숙사비, 급식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장 비싼 곳은 민사고로 1년간 학비가 2598만원에 달한다.

각각 국내의 대학 진학 실적, 대입 수시·정시 비중, 기숙사 체제와 통학 여부, 학비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은애 <함께하는 교육> 기자